

# 07

## 광주의 기업가정신에 대한 단상

이철승

더함 전문위원  
(경제학 박사)

## 7. 광주의 기업가정신에 대한 단상

### ■ 기업가정신과 사회적 책임

개인이 자신을 포함한 세계와 특정대상에 대해 부여하는 가치 또는 견해, 입장을 우리는 가치관이라고 한다. 기업가정신은 바로 기업가가 가지고 있거나 갖추어야 할 가치관과 태도라고 쉽게 이야기할 수 있다.

기업가정신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어 왔다. 전통적 의미의 기업가정신은 미래에 대한 통찰과 혁신적·창의적인 개념으로 설명되어 왔다. 미국의 경제학자인 슐페터가 ‘기술혁신을 통한 창조적 파괴’의 관점에서 정의한 기업가의 역할과 기업가 정신이 그 맥락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현대 경영학의 구루라 불리는 피터 드러커는 저서를 통해 ‘기업가’를 “변화를 탐구하고, 변화에 대응하며, 변화를 기회로 활용하는 자”라고 정의하며, 기업가정신의 본질은 ‘실천’에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기업가정신은 사회 각 분야에서 필수적인 것으로, 기업가정신의 확산은 ‘복지국가’의 다음사회 ‘기업가사회’로의 전환을 추동할 것이라 주장하였다.

기업가정신은 다분히 철학적이어서 어떤 접근과 해설이 반드시 옳다고 특정할 수는 없지만, 통상 기업의 본질에 따라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혁신’ 등의 실천적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다. ‘기술혁신’, ‘절차의 효율화’, ‘생산성 향상’ 등의 용어들이 혁신적인 기업가에게 필요한 핵심요소로 인식되는 까닭일 것이다.

최근 기업과 기업가정신을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핵심가치가 있는데, 바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이다. 이는 중등교과과정에 반영될 정도로 필수적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경영활동과 관련된 직·간접적 이해관계자에 대한 법적, 경제적, 윤리적 책임을 감당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통상 정의하는데, 보편적으로 ‘봉사’나 ‘공헌’과 같은 자선(慈善)의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기업 역시 브랜드이미지 개선을 통한 기업가치 증대의 도구로 활용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경영전략의 일환으로써 선별적이고 선택적 사항이라는 의견, 즉 자율주의적 견해가 가지는 한계와 대안에 대한 논의 역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주요 국가에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확산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며 국제기준과 개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인도는 2019년부터 ‘CSR의무화법’을 통해 3년 회계연도 평균 순이익의 2%이상을 CSR활동에 의무적으로 투자하도록 하고 있으며, 미국과 유럽 역시 관련 기업에 대한 지원과 보고를 의무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독일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이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국가차원의 ‘CSR Action Plan’을 수

립하였으며, 덴마크는 2012년부터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천계획’을 통해 재무제표에 CSR 공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기업의 책임에 대한 제도의 확립을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으나, 그 필요성과 범위에 대한 논쟁은 여전히 뜨겁다.

하지만 이러한 공공섹터의 노력이나 ‘강제성(제도화)’의 논쟁과는 별개로, 주요 기업들 역시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과 환경 변화에 따른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을 필수적인 사항으로 보고 있다. 윤리적 선택 사항이 아닌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필수적인 투자 행위로 인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CSR의 일방적 재분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기업의 이윤창출 활동과 사회·환경적 가치를 통합하여 경제적, 사회적 가치의 총량을 함께 확대하는 개념인 공유가치창출(Creating Shared Value, CSV)에 대한 관심과 시도가 확산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사회적기업가정신, 창업기업가정신의 설명을 위한 기본가치로 인식되고 있다. 사회적 가치에의 투자는 기업의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행위이며, 이를 위해 기업이 주도의 혁신과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은 기업가정신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하나의 범주에서 논의되어야 하는 이유일 것이다.

#### ■ 광주와 기업가정신?

‘광주형’이라는 단어는 역사적 과정을 통해 광주시민이 구현한 가치와 역량, 이를 통한 자부심을 현재에 어떠한 방식으로 반영할 것인가에 대한 화두일 것이다. 아마 대부분의 광주시민은 ‘공동체의식’, ‘민주적 가치’, ‘정의’ 등의 가치를 광주정신의 근간으로 인식할 것이다.

그렇다면 광주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기업 활동은 어떤 것이 있을까?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먼저 고민되어야 할 것들이 있다. 하나는 기업 활동은 경제적 가치창출을 위해 법적, 윤리적, 사회적 가치에 다소 소홀하더라도 용인해온 사회적 인식의 전환이다. 그리고 ‘광주형 기업가치’를 도출하더라도 어떻게 확산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제도를 통한 일정 수준의 강제가 필요할 수 있지만, 오히려 위축된 광주경제 상황을 악화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어 시점과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광주의 기업·경제 상황에 적합한 방향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기업환경은 말 그대로 “매우 복잡”하여, 특정 용어나 단일한 상황으로 정의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결국 ‘경제적 가치 증대를 위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함’과 동시에 ‘사회적 가치에 투자하는 기업가정신의 확산’을 통해 기업의 미래가치를 높이고, 사회문화적 문제 해결 과정에 기업이 적극 참여하는 경제공동체의 구현이 ‘광주’와 ‘기업’이라는 다소 이질적으로 보이는 두 단어의 접점을 찾기 위해 끼워야 할 첫 단추일 것이다.

## ■ 미래가치 증대를 위한 방향 검토

### 1) 경제적 가치 증대를 위한 투자 : 연구개발 활동의 질적 가치 회복

광주의 지역내 총생산(GRDP)은 최근 통계기준 약 35조원으로 전국 대비 약 2%의 규모를 보이고 있으나, 지역내 28.1%의 부가가치 비중을 차지하는 제조업의 높은 생산액 성장수준이 지역 경제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역제조기업은 8,983개사로 다소 적은 편이나 종사자는 8.6만명으로 전국 평균 수준의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공장등록수의 연평균 증가율은 약 5%로 평균을 상회하고 있다. 광주는 제조업체중 종사자 10인 미만의 기업의 비중이 92.6% (300인 이상 기업은 93개사로 0.1%) 수준이며, 매출규모도 50억 미만의 기업이 전체의 97.1%를 차지하고 있어 중소·영세기업이 주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자동차, 가전산업과 대기업의 비중이 높은 반면, 역내 생산품의 역내 조달율이 낮은 한계를 보이고 있다.<sup>1)</sup>

결국 광주의 경제적 가치 증대를 위해서는 서비스업 기반의 성장 한계를 극복하고, 중소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핵심산업군의 신성장 동력이 될 기술력의 확보가 절실한 것이다. 기업의 기술력 확보를 위한 방법은 다양하겠지만, 최우선 과제는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투자와 함께 질적 가치의 증대를 위한 기업가 주도의 관리 노력일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의 직접투자를 통해 기술성과를 확보하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경영 여건 등에 따라 많은 중소기업이 정부의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소수의 기업은 기술 확보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아닌, 그 반대의 경우로 접근하고 있다는 관계자들의 불멘소리가 적지 않다. 물론 재원의 특성과는 관계없이 기업의 연구개발을 위한 투자는 어떤 방식으로건 확대되어야 한다. 하지만 재원의 규모와 활용방법은 연구개발 목표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기업가는 연구 성과를 얻기 위해 가장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투자 및 관리 계획을 수립,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기술혁신은 기업본연의 역할이자 전통적 기업가정신의 핵심영역이다. 다소 진부한 내용일 수 있는 연구개발 활동을 미래가치 증대의 관점에서 언급하는 것은 그간 관습적으로 이루어진 부정적 방법 또는 비효율적 접근은 지양하고, 그 목표와 절차 등의 핵심내용에서 광주기업이 주도하는 새로운 의미의 재정립(질적 가치의 회복)이 필요함을 주장하는 것이며, 이는 기업가들의 의지에 의해서만 가능할 것이다.

1) 광주광역시, '2021년도 지역혁신성장계획'(2020. 4)

## 2) 사회적 가치 투자를 통한 기회 선점 : 그린뉴딜의 선도

‘2050탄소중립’, ‘AI그린뉴딜’ 등과 같이 정부와 공공영역에서는 기후문제와 경제위기의 극복을 위한 여러 비전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의 여러 기업에서 우리와는 관계 없는 문제이다거나 새로운 규제에 대한 우려, 아니면 단순한 정치적 이슈메이킹으로 판단하는 경우를 적지 않게 접하게 된다.

하지만 단언컨대 기후대응과 이를 위한 그린뉴딜 정책은 선택적 사항이 아니다. 이미 산업구조와 플랫폼의 전환 방향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하며, 우리 광주 역시 3대 전략 8대 과제를 통해 혁신 방향을 수립한 바 있다. 정책적 논의와는 별개로 주요기업들 역시 미래 핵심전략으로 ESG경영(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에 주목하고 있으며, 특히 국내의 주요 기업들은 RE100 참여를 공표하고, 협력관계의 기업에게도 이를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한국형 RE100 제도의 법적 근거 역시 마련된 상황이다. 대규모의 공적자금이 투자되기도 하지만, 공공이 주도한다는 측면에서 기업은 기존 운영방식의 변화를 초래하는 다소 불편한 상황으로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며 신규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적극적 대응이 필요한 영역임을 부정할 수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광주 기업들은 RE100 산단 조성 등의 세부적 뉴딜계획을 숙지하고, 선제적 대응 방안에 대해 깊이 있게 고민하여야 한다.

## 3) 상생 가치에의 투자를 통한 기회 창출 : 사회적경제기업과의 협업 제안

통상 ‘기업간 상생’은 ‘대기업과 거래관계에 있는 중소기업간 관계’의 방향성을 정의하는 의미로 활용되지만, 다소 다른 관점에서 사회적경제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사회 가치에 투자하는 새로운 방향을 제안하고 싶다.

최근의 조사<sup>2)</sup>에서는 광주의 사회적경제기업을 약 1,194개로 파악하고 있다. 제조업(20.6%)과 도소매(20.8%)업종의 비율이 높고, 설문에 응답한 65%의 기업이 일자리제공을 설립목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조사내용 중 몇 가지 응답결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우선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이 강점으로 꼽은 분야는 품질과 가격이며, 약점과 어려움으로 꼽은 항목은 자본력과 마케팅이라는 점과 연구개발인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힌 기업은 총 353개 응답기업중 32개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사회적경제기업은 설립목적이 사회적 가치 구현에 있다는 점, 즉 발생한 이윤의 분배 원칙에 차이가 있다는 점 외에는 보편적 기업 활동 방식과 대동소이하게 운영된다. 원재료 구매 등 사회

2) 광주광역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2020 광주광역시 사회적경제기업 실태조사 및 분석’(2020. 12)

적경제기업의 거래대상으로 일반기업이 가장 많다는 설문 응답을 보아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사회적경제기업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반기업이 가지는 강점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지만, 품질과 가격을 자신하고 있다. 다소 단편적이긴 하지만, 충분히 거래관계의 형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하는 이유 중의 하나이다.

최근 우리 광주에서 사회적경제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신발 인솔 등 사회적기업 생산 제품에 지역의 센서기술을 적용하여 새로운 제품군을 개발하는 연구개발사업을 진행하여 호평을 받은바 있다.

광주의 기업들이 사회적경제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사회가치에 직·간접 투자하는 것은 경제적 관점에서 동반성장할 뿐 아니라 새로운 사업 영역을 창출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 ■ 광주형 경제공동체의 기반

기업의 활동은 매우 보편적이면서도 복잡한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이윤 창출을 위한 고유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광주형’이 갖는 상징적 의미와 다소 거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기도 한다.

하지만 최근의 환경변화는 기업이 ‘사회적 가치’에 소홀할 경우 그 지속가능성을 보장받지 못할 것임을 예언하고 있다. 광주의 기업들이 처한 어려움을 감안하면 너무 가혹하다 여길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은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기 위한 기업가들의 혁신과 도전이 가장 빛을 발하는 시점이기도 하다.

경제적 가치 창출과 사회적 가치에의 투자활동이 별개의 영역이 아님을 인식하고 실천하는 기업가정신의 확산이야말로 광주형 경제공동체의 단단한 기반이 될 것이라 확신하며, 광주 기업의 건승을 응원한다.